「新宗教研究」제4집, 한국신종교학회, 2001.

普天敎 十一殿과 曹溪寺 大雄殿

안후상 / 조계종 불학연구소

머 리 말

일제 식민지시대에 실의에 빠져 있던 민중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상징물 중 하나가 普天敎 十一殿이다. 이러한 상징물이 왜, 그리고 어떻게 건설되었으며, 건설된 十一殿의 규모는 어떠했는 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진 바가 있다. 그러나 해체와 그 이후에 어떻게 轉用됐는 지에 대한 자료가 그동안 전무했었다. 그러던 중에 曹溪寺 건립과 관련한 불교계의 자료들을 접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事實들을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십일전의 해체와 轉用되어지는 전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轉用이 갖는 시대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보고자 한다.

보천교 십일전은 현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조계사 대웅전으로 轉用돼 있다. 전용 배경에는 당시 한국 불교계의 총본산 건설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교계의 총본산 건설은 당초 조선불교선교양종 총본산 각황사로 命名된 건물을 이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각황사를 철거하고, 종로구 수송동의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자리에 井邑의 普天敎 十一殿을 買入하여 移築하는 것이었

다. 따라서 불교계 통일운동의 핵심인 총본사 건설과 관련하여 深思熟考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한국 불교계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기존의 각황사에서 보듯, 日本寺刹 樣式이 아닌 純 朝鮮式인 普天教 十一殿을 한국 불교계가 선택한 동기나 그 배경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왜 普天教 十一殿인가

1) 普天教運動의 개요

동학농민전쟁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민중들을 慰撫하며, 東學運動과는 달리 조직과 行事를 통해 암울했던 시대를 극복하려는 운동이 普天教運動이다. 한때 수백만 민중을 조직했다는 보천교는 1918년 10월에 제주도 중문의 법정사에서 승려들과 함께 항일봉기를 주도하였다. 1920년 전후해서는 自作自給을 실천하는 물산장려운동을 전면 또는 측면에서 이끌었으며, 당시 左右를 막론하고 민족해방운동가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제의 식민지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1] 1919년을 전후하여 교인에 대한 대규모 검거선풍이 일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인 수 십 명이 고문으로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1920년대 초에 경남 황석산에서 국호를 선포한 이후, 수 차에 결쳐 天子登極運動을 벌였다. 이 운동은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고 新天地 仙境世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天子가 새로 등장하여 조선을 통치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불렀었다. 일제의 끈질긴 탄압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위해 1922년에 官에 등록하니, 이름하여 普天教라 하였다. 이는 당시 태을교, 훔치교, 선도교로 불리워진 비밀지하조직의 노출에 따른 일제의 교묘하고도 집중적인 탄압을 받게 됨을 의미하였다. 일제는 내부 분열을 유도하거나 괴로집단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때로는, 민족 감정을 離反한 집단으로 뒤집어씌우기도 하면서 교조직을 支離滅裂하게 하였다. 결국, 1936년에 교주격인 車月谷의 타계로 조직과 교본소는 완전 해체되고, 그 움직임도 중단되고야 말았다.

필자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新天地 建設의 前 단계인 新政府 建立을 표방했던 仙道 계통의 모든 움직임들을 '보천교운동' 또는 '선도세력의 민족운동'이라 부르며,[2] 이를 당대의 대표적인 민족·민중운동으로 보고 있다.

2) 普天教 本所와 十一殿

서울 남산에 거대한 朝鮮神宮이 준공(1925)될 무렵에 전라북도 정읍의 大興里에 자칭 민족의 大聖殿이라 하는 보천교 십일전〔太極殿〕은 1925년에 착공되었다. 착공되던 해의 8월에 경찰의 제지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928년 겨울에 준공한 보천교 본소는 2만평이 넘는 부지에 현 조계사와 내장사 대웅전과 같은 건축물이 45채, 그리고 10여 채의 부속 건물이 자리하였었다. 본소와 그 주변은 우물 井字로 구획한 신도시로, 新政府의 도읍이 된다하여 몰려든 彈竭者[3]만 약 500여 호가 거주하였다. 인근 마을에도 탄갈자 약 3,000여 호가 거주하였으니, 식민지 시대 정치·사회적 파급을 몰

1)'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및 '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 관계를 밝힌 졸고는 다음과 같다.
안후상,「제주법정사무오항일항쟁연구」(『종교학연구』15집, 서울대종교학연구회, 1996.).,「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19집,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8.)

2)보천교운동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졸고는 다음과 같다.
안후상,「일제하 보천교운동」(상·하)(『남민』제4집(1992), 제5집(1995), 서해문집.).
,「일제하 보천교 탄압사례」(『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 고려한림원, 1997.).
,「보천교운동의 현황과 과제」(『한국종교사연구』제6집, 한국종교사학회, 1998.).
,「차월곡 출생에 관한 소고」(『신종교연구』2집, 한국신종교학회, 2000.).

3)家産과 함께 신정부의 수도가 될 정읍의 대흥리로 移住한 자들을 탄갈자라 한다.

고 온 보천교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제를 위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신정부의 상징으로 인식된 聖殿 十一殿 건립의 의미는 남달랐다. 十一은 土(흙)을 상징한다. 이른바 後天에는 흙이 왕성하리라 하여 土자로 성전을 지은 것이라는 설이 있다. 土는 곧 十一이다. 더불어, 易學에서의 '十은 陰의 수로서 가장 큰 마침의 수이며, 一은 陽의 수로서 시작되는 첫 수이다. 그러므로 十과 一이라는 숫자는 陰陽의 始終을 뜻한다.' 또한, 음양은 순환하여 천지만물을 생성하는 조화의 본체로서 太極을 뜻하였으니, 十一殿을 太極殿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또는, 十無極인 '地'와 '天'을 적용한 이름이라는 설과, 五行 중 중앙의 土를 상징한다 해서 위의 十과 아래의 一을 따서 十一이라 했다는 설도 있다.

北向[4]인 십일전의 내부는 聖塔과 신앙대상인 日月星神을 상징하는 병풍이 안치되어 있다.[5] 그러나 그 형식은 경복궁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의 일월오악병과 비슷하다. 더군다나 십일전 양 측면에는 근정전의 해태상과 같은 상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에서[6] 종교를 표방했지만 정치적인 야심을 지닌 사회운동단체였음을 알 수가 있다.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敎本所의 건설비는 총 150만원 이상 들었다고 한다.[7] 十一殿을 짓는데 필요한 원목은 만주 琿春縣(혼춘현) 및 露嶺(노금) 방면에서 가져왔으며, 建坪 136坪에 높이는 87.7尺, 길이가 100자, 광(넓이)이 50자, 기둥이 24자, 보의 길이가 48尺, 末尾 2尺 5寸, 포는 15포,

4)先天時代에는 子坐午向이었으나 後天時代에는 午坐子向이어야 한다며, 십일전을 북향으로 안치하였다고 한다.

5)보천교의 신앙 대상은 '우주 자연'이다. 필자는 보천교를 한국화된 道敎로 보며, 당시에도 자타가 보천교를 仙道라 칭하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6)현 조계사 대웅전의 해태상으로 보이는 석상은 보천교 십일전 당시의 것으로, 십일전과 함께 옮겨졌다.

7)『개벽』신간 제1호(1935.11.), 62~66쪽.

높이 20尺, 기둥 높이 20尺, 자치미 높이 20尺, 大樑 48尺이라 전하기도 한다.[8] 지붕은 黃瓦를 이었다가 '황와는 日皇을 능멸하는 작태'라 하여 일제의 제지가 뒤따랐다. 따라서 보통 기와로 대체한 십일전의 공사비는 총 50만원, 공사 기한 5년, 그 웅장함이란 반도 내 최고였다고 한다.[9] 十一殿 額解는 '十無極一太極卽天地陰陽之所自出而其不測者神也揭虔三影持樹信仰焉'이라, 해석하면 '十은 무극이요 一은 태극이라 天地陰陽이 나오는 곳으로 그 불측함은 神이라 三影을 높이 들어 공경하면 신앙을 심어 줌이라'이다.[10]

건축과 관련해, 扶安 사람 심사일이, 중간에 경남 陜川 사람인 변경재가 도편수를 맡았으며,[11] 경복궁 중건 당시 도편수가 관여했다는 얘기도 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十一殿 移築 당시 도편수는 경복궁 중건 당시 도편수 崔元植이었다는 사실이고 보면, 최원식 역시 十一殿 建築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12]

8)'十五萬餘 敎徒 待望의 佛敎 總本山 竣工'(『매일신보』, 1938.10.23.)에는 '십일전의 길이는 105자, 측면 길이 55척, 건평이 235평' 등으로 기록하는 등,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기록이 자료마다 분분하다. 이들 모두는 실측보다는 목측일 가능성이 크다.

9)1925년 부지 127,900평에 15개의 건물을 건립하여 조성한 서울 남산의 朝鮮神宮의 경우 총 소요 경비가 156만원이었다.(김진소,『천주교전주교구사』1권(도서출판 빅벨, 1998.), 879쪽 참고.) 이를 감안한다면, 보천교 본소 및 십일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0)閔泳國 編,『時鑑』(보천교총정원전문사, 1984.), 171쪽. 이외 보천교 발간 자료 참고.

11)안후상, '보천교 본소 건축물 보존운동을 제안하며'(『정읍신문』172호, 1994.2.). 이외, 장봉선의 '보천교 본부'(『정읍군지』, 1936.)와 유광렬의 '사멸 중인 보천교'(『개벽』1935. 1), 비봉선인의 '정읍의 차천자를 방문하고'(『개벽』1923.8.), 교지 편찬위의 『보천교지』(보천교중앙총정원, 1965.), 그리고 차봉남의 구술(1999.4.5.)을 참고하였다.

12)崔元植에 관해서는 신영훈의『조선의 궁궐』(조선일보사, 1998.), 78쪽. 특히, 규모가 큰 고건축의 경우, 창건 당시의 도편수가 아니면 移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고 보면, 최원식이 보천교 십일전 건축에 어떻게든 참여하였으리라 본다.

3) 普天教 本所의 해체

1936년 3월에 차월곡이 타계하자 전주경찰부와 정읍경찰서 소속 형사대 70여 명이 교본소에 난입하여, 교의 치성금 수합 금지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본소를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4월 20일부터는 權昶夏 등 천원주재소 경찰들이 본소에 유숙하면서 聖殿 등 본소 건축물 내부를 파헤쳤다. 이들은 조직의 책임자격인 協正院長과 수호·경리 두 사장을 불러 십일전을 위시한 본소 건물을 당국에 제공하라고 위협하였다. 같은 해, 6월 6일에 경찰 권영하, 강제령 등이 교의 중요 간부 24인을 연행해 '보천교 해산', '신건축 포기', '삭발' 등을 강요하며 협박하였다. 이들은 뜻대로 되지 않자 허락 없이 성전 내 개금된 성상과 제기며, 신앙 대상인 三光影 壁畵와 도금된 제단 등을 모두 뜯어갔다. 같은 해 6월 15일에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 수 십 명이 또다시 난입하여 본소의 나머지 시설물들을 철거하여갔다.

한편, 정읍경찰서에서 교본소 건축물들을 경매하려 하자, 정읍의 유지들이 '보천교 건물은 역사상 一大生光인즉, 이곳에 병원과 학교를 세우자'며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경찰은 '보천교의 씨앗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 상징물들의 존재를 목적으로 백만원에 낙찰을 원한다고 한들 낙찰을 반대하겠다'며 무산시켰다. 일제는 경매에 들어가지 전에 일부 교인들로 구성된 '普天教財産處理委員會'라는 유령 단체를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재산 포기 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어, 경매에 들어갔으나 어느 누구도 경매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유령 일본인에게 경매가의 절반인 500원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13] 십일전 건축 비용이 50만원인데 비해 경매가는

13)『보천교연혁사』종 7~12쪽. 앞의 자료에 의하면, 보천교재산처리위원회 6인 소위에는 김낙진, 하무열, 원약재, 이달성, 김해성 등으로 돼 있다. 일제는 이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낸 뒤, 본소 건축물은 철저히 파괴하였다. 이후, 正門인 普化門 일부는 내장사 대웅전이 되었고, 일부 석재와 목재는 동대문 개·축성에, 또는 정읍의 각급 학교 교사를 짓는데 사용되었다.

터무니없는 500원이었던 것이다. 또한, 낙찰자인 江戶長次郎은 경찰의 하수인이었으며, 낙찰대금 500원도 모두 경찰 측으로 넘어갔다는 傳言이 있어, 정상적인 경매가 아닌 압수였음을 알 수가 있다.[14]

4) 十一殿 移築을 選擇한 배경

한국 불교계가 보천교 십일전을 매입, 移築하려는 의도나 동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몇 가지 정황으로 당시의 상황을 추론해 볼 뿐이다. 참고로, 보천교 십일전 移築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불교계 총본산 건설과 보천교 본소의 해체 시점이 같다는 데서 일 수 있는 오해의 재생산이다. 즉, 총본산 건설을 돕기 위해 일제가 보천교와 교본소를 의도적으로 해체시켰다는 설이다. 본 난에서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자, 한국 불교계가 보천교 십일전을 선정하게 된 계기와 선정에 따른 시대사적 의미를 간추려보고자 한다. 십일전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의 권유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총독부로서는 보천교의 拔本塞源을 궁리하고 있을 때 불교계의 이종욱은 총본산 건설과 관련하여 총독부를 수 차에 걸쳐 방문한 적이 있다.[15] 이때 일제의 '십일전 매입' 내락이 있었지 않았나 추정된다.[16]

둘째, 일본불교와의 차별화를 은연중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일제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조계종이라는 종명 결정 과정에서 이종욱은 한국불교의 전통과 특색을 고려해야 한다고

14)유령인 江戶長次郎('총본산에 관한 보고'(『불교』신12집, 1938.5.), 30쪽에 '언급.')은 31본산 주지대표 이종욱과 십일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15)이종욱은 총본산 건설과 관련하여 1937년 3월 18일과 4월 14일 등 두 차례 이상 총독부를 방문하였다.

16)『불교』신4집, 1937.6.), 52~55쪽. 당시 매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협조를 얻어내는 등의 사실에서 알 수가 있다.

하였던 만큼,[17] 십일전의 선택은 한국불교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움직임과 다를 바 없다. 특히, 1935년 8월에 조선불교교무원 회의실에서 열린 31본산 주지회의에서 '순 조선식 법당 모방'을 결의하기도 했으니,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한국불교의 전통과 특색을 왜색불교 일색에서 지켜내려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실리를 따랐던 것 같다. 규모나 미적으로나 당대 최고인 십일전 이축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대 불교계의 변화된 위상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新築이 아닌 移築을 선택했다는 것은 변화된 위상에 걸맞는 조직과 재정의 부재라는 당시 한국 불교계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18]

넷째, 은연중 민족·민중 운동의 거점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당시 민족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남산의 朝鮮神宮 건립에 맞선 상징적 건축물이 십일전이라는 풍문이 나돈 것과 맥을 같이 한다.[19] 즉, 민족적인 상징물을 남산의 신사와 배대되는 곳 종로통에 세워 전통불교의 이미지 강화를 꾀했을 수도 있다. 더불어, 서울의 한 중심지에 민족·민중운동의 상징물인 십일전을 이축함으로써 은연중 민족·민중운동의 중심 역할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보천교 십일전 이축을 결행하였던 이종욱은 1940년대 항일무장봉기를 꾀하는 등, 겉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항일운동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 또한, 보천교 해체 이후 다수의 교 간부와 교도들이 불교에 입문하였음은 종교적 신념보다는 민족·민중운동의 한 축으로써 보천교운동을 받아들였다는 근거[21]이자, 앞의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史實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17) 강석주·박경훈의 앞의 책, 172쪽. '壽松町에 建立되는 朝鮮佛教 總本山' (『매일신보』, 1937.3.9.)에는 '수송동 불교중앙교무원 자리에 순전 조선 고대식 사찰 건축양식으로 건축 할 것을 31본산회의에서 결정했다' 고 돼 있다.

18) '총본산 건설에 관한 보고' (『佛教』신12집, 1938.5.), 30쪽.

19) 필자의 유년기 적부터 전해들은 얘기이다.

20) 『불교신문』(1803호, 2001.2.27) 참고.

21) '보천교도가 불교에 귀의하였다…' (『조선일보』, 1923.11.15.). 참고로, 천태종과 원불교가 보천교의 영향으로 창종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교학승 김탄허 역시 보천교에서 수학을 하였으며, 탄허의 부친 김홍규는 보천교 조직의 제 2인자였다. 월정사 탄허 문도들 중에는 보천교와 관련 있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 또한 앞의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아무튼 일제에 의해 한국 불교계 통합 기구 설립이 추진력을 얻긴 하였으나, 한국 불교계 지도부에서는 일본식 건축물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불교는 물론 총독부에 대한 자주적 입장이 불교계 내부에서 은밀히 형성되어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일제는 보천교 십일전을 유령인을 통해 한국 불교계에 되팔아 일약 10,500원을 남기게 되니, 그들로서는 부담스러운 보천교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거금을 챙기는 일거양득의 계산이 실현된 셈이다.

2. 普天教 聖殿에서 佛教總本寺 大雄殿으로

1937년 3월 5일에 제1회 총본산건설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다음 날인 6일에 31본산 주지대표 李鍾郁[22]과 상임위원 林錫珍, 車相明 등이 총본산건설위원에 취임하였고, 서무 韓性勳, 회계 李甲得 등으로 하여금 관련 사무를 보게 하였다. 이어, 상임위원에 차상명을, 범어사 원로인 김경산을 고문으로 앉히는(3.20) 한편, 통도사 원로인 金九河를 상임위원으로 선정(3.25)하기도 하였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청평사 주지 金靑庵이 공사 감독에 취임(4.1)하였다가 동년 11월 27일에 사임하였다. 이때 丹靑 化主로 朴大輪이 추천(10.5)되기도 하는 등,[23] 보천교 十一殿을 매입한 한국 불교계는

22) 총본산 건설 총책은 李鍾郁이다.

23) '총본산 건설에 관한 보고' (『佛教』신12집, 1938.5.), 30쪽. '조선불교총본산 대웅전 건축보고' (『佛教』신17집, 1938.11.)에 나타난 總本山建設委員으로는, 비상임고문에 姜大蓮과 宋宗憲, 상임고문에 金九河와 金擎山, 건설위원으로는 주지대표 李鍾郁과 林錫珍, 車相明, 金法龍, 柳寶庵, 朴洙, 金尙昊, 黃金峰, 그리고 도중에 尹相範, 姜性仁, 韓普淳, 朴贊範, 李明教(非常任)이, 寺法起草委員으로 李東碩, 崔英煥 등이 포함되었다. 참고로, 김법린의 '한국불교의 독립을 위한 항일투쟁기'

서둘러 총본사 건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축 공사의 진행 과정 및 소요 경비와 인력 등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축 과정이나 일정, 소요 경비 는 발간 시점에 따라, 그리고 같은 자료라 할지라도 기술한 이에 따라 그 내용이 불일치함에, 최종 보고서인 '조선불교총본산 대웅전 건축 보고' (『불교』(신17집, 1938. 8. 11).)를 중심으로 본 난을 정리하였다.

1) 普天教 十一殿의 매입과 철거

31본산 주지회의에서 결의된 대로, 월정사 주지 이종욱과 송광사 주지 임석진, 범어사의 차상영 등이 정읍에 먼저 내려가 있던 건봉사 승려이자 교무원 재무이사인 黃金峯과 만나[24] 보천교 십일전을 답사(1937.3.7)하였다. 같은 달 9일에는 群山에서 십일전 경매 낙찰자인 江戶長次郎과의 십일전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으로 12,000원을 지불하였다.[25]

십일전 철거 기한인 1937년 3월 10을 하루 앞두고 이종욱은 정읍경찰서장 및 전라북도 경찰부 高等課長을 만나 철거 기한 연장 허락을 얻어낸 뒤, 같은 해 3월 13일에 건물 이전 책임자인 거사 南周熙와 2천원에 철거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종욱은 교무원 서무이사인 김상호와 함께 총독부에 들어가 총본산 건설을 상의하고,[26] 같은 해 3월 26일부터 십일전 철거에 들어갔다. 이어, 같은 해 4월 1일에 철거 감독으로 임석진과 金青庵, 대목에 卞慶宰와 卞雲호, 목재 감수원에 李啓圓, 李喆悟, 李鍾喆 등을 선정하여 파견하였으며, 두 달 간에 걸친 철거 공사는 1937년 5월 5일에 대부분 종료하였다.[27]

(『대한불교』42, 1961.)에는 공사 감독에 李郭雲(단청)과 金青潭(유점사 주지)이라 돼 있다.

24) 『불교』신4집, 1937.6, 52~55쪽. 참고로, 김법린의 앞의 글에는 黃金峯이 아닌 黃金宰로 표기돼 있다.

25) 『불교시보』21호, 1937.4, 6쪽.

26) 『불교』신3집, 1937.5, 43쪽.

1937년 4월 7일과 4월 9일에 각각 석재와 목재 운반이 시작되었다.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일명 대홍리로부터 정읍역까지의 운반은 井邑人 韓石崇에게 1,400원에 맡겼다. 정읍역에 도착한 하물의 하륙 및 적재는 정읍역의 高○重에게 660원에 맡겼고, 서울역에 도착한 목재의 하륙 및 조선불교교무원까지의 운반은 京春鐵道株式會社에 4,600에 맡겼다.[28] 같은 해5월14일에 석재와 목재 운반 모두를 완료하니, 철거에서 재료 운반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29]

2) 施工에서 落成까지

明星學校와 大慈幼稚園을 각황사 부지로 이전하고, 조선불교교무원[30] 및 부속 건물들을 철거하였다. 주변의 한옥 3동 45간에 해당하는 대지 160평을 19,415원에 매입한 이 자리에 총본사 대웅전을 건립키로 하였다.[31] 참고로, 조선불교교무원 자리는 조선불교총무원 당시의 총무원이 인수했던 普成高等普通學校[32]가 있던 곳으로, 뒤에 조선불교교무원에서 교사의 비좁음을 이유로 학교를 혜화동으

27)' 총본산 건설에 관한 보고' (앞의 책), 30~32쪽. 이외, 현 조계사 사무실에 보관중인 당시 계약 문건참고. 그러나 한용운의 '총본산 창설에 대한 재인식' (『佛教』신17집, 1938.11.)에는 1937. 3.26~5.14에 철거되었다고 적고 있어, 앞의 자료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8)' 총본산 건설에 관한 보고' (앞의 책.), 30~32쪽. 『불교』신5집(1937.7.), 41~42쪽.

29)' 교계소식' ·' 사설' (『불교시보』23호, 1937.6.).

30)조선불교중앙교무원은 1924년 4월 조선불교총무원을 교무원 중심으로 통합한 기구이다.

31)' 총본산 건설에 관한 보고' (앞의 책), 한용운의 '총본산 창설에 대한 재인식' (『佛教』신17집, 1938.11.).

32)1905년경에 설립된 보성학교는 1909년 6월에 天道教에서 인수, 운영하여 오다가 운영난으로 인하여 1923년 7월경에 불교계, 당시 조선불교총무원으로 운영권을 넘겼다.('普成教의 新主人' (『매일신보』, 1923.7.3.), '天道教에서 佛教院으로 주인을 바꾼 보성고등보교' (『매일신보』, 1924.1.7.).

로 옮긴 뒤 그 곳에 교육원을 설치하였다.[33] 한국 불교계는 바로 이 곳에다 총본사 대웅전을 건립한 것이다.[34] 총본사 대웅전 건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십일전 건축 재료가 도착하자마자 1938년 5월 25일 李王職과 早崎次八 2인에게 이축 설계를 맡겼다.[35] 같은 해 6월 24일 교무원 발급 제24호로써 경기도에 허가원을 제출, 7월 6일에 京保健 제659호로 허가를 받았다. 이어, 南周熙와 22,684원에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원목과 기타 자재를 보충하였다. 그리고 남주희, 朴○裕, 金興山 세 사람으로부터 기와를, 석재는 金昌雄, 牛書田 두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이로써 1938년 7월 27일에 起工(開基)을 시작으로, 9월 3일에 定礎, 10월 12일에 上樑, 11월 26일에 蓋瓦를 끝으로 移築 공사는 완료되었다.[36] 기타, 단청(1938.4.14~6.2)과 후불탱화(1938.7.3~8.29)에 이어, 1938년 10월 10일에 전기 배

33)조계사 등기 서류 참고. 김법린, '한국 불교의 독립을 위한 항일투쟁기' (『대한불교』42, 1961.). 보성고보가 혜화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1926년 6월 14일에 열린 조선불교교무원 임시평의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중앙교무원 발기로 불교전문교 신설' (『매일신보』, 1926.6.19.). 1924년 4월에 조선불교총무원이 조선불교교무원으로 흡수, 통합됨으로 각황사는 재단법인화한 조선불교교무원의 연고로 자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崇一洞의 동광고등보통학교(필자주:현 조계사 동문 좌측에 자리함.)의 설립, 운영자였던 조선불교교무원은 보성고등보통학교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34) 조계사 등기 서류를 발굴하여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현 조계사 대웅전의 地番은 壽松洞 44번지(1,409평)이다. 처음에는 사립학교 용지로 돼 있었다. 1924년 6월 21일에 등기한 소유주는 朴寅浩다.(필자주:박인호는 당시 천도교의 최고위 간부였다.) 한때 학교 용지가 폐지(1929.9.6) 되었다가 1927년 3월에 재단법인 조선불교교무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다시 사립학교 용지로 등록(1929.3.2)되었다. 이후, 太古寺로 소유권이 변경(1942.5.18)되었다가, 1975년 6월 11일 다시 曹溪寺로 寺名이 바뀌었다. ②조계사 동문 입구 우측은 地番이 堅志町 45번지(200평)이다. 처음 소유자는 禹善弼, 이어 金河橙의 소유였다가 태고사의 소유가 되었다.(1944.6.3)

35)' 조선불교 총본산 대웅전 건축보고' (앞의 책).

36)김법린의 앞의 글에는 5월 기공, 1938년 9월 준공으로 나타나 있다.

선, 스팀기관실 등 제반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였다.[37]

참고로, 상량문은 총본산 건설위원이었던 權相老가 썼다. 일제의 심전개발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총본사 대웅전을 건설했다는 내용이 상량문에 포함되었는가 하면, 上梁式 때 '國威宣揚武運長久祈願文奉讀'이 포함되는 등 총본산 건설을 있게 해준 일제에 보답하는 순서를 빠트리지 않았다.[38]

20개월이 걸려 완공을 본 대웅전 落成奉佛式이 蓋瓦 공사보다 앞선 1938년 10월 25일 오전 4시에 불교도와 일반 시민 수 만 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오후 2시에는 戰歿將兵慰靈法會가 개최되었고, 다음 날인 26일에는 31본산주지회의를 개최하여 총본산의 寺法 認可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 기구를 두기로 결의하였다.[39]

移築에 소요된 경비는 다음과 같다. 대웅전 내부 난방 공사비로 4,002원 60전이 1938년 11월 29일에 지불되었고, 난방 설비비는 6,535원이 1939년 3월 5일에 지불되는 등 총 185,675원이 들어갔다. 비용은 각 본사의 건설 지원비, 부지 매각 대금, 기부금, 차입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각 본사의 지원이 미진한 데다 빌린 돈이 당시 58,920원이나 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40]

37)한용운, '총본산 창설에 대한 재인식' (『불교』신17집, 1938.11.). 앞의 자료에는 여타 자료의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내용이 있다.

38)' 消息' (『佛敎』신8집 및 신17집, 1937.11)에는 상량식 일자가 10월 11일 하오 3시로 나타나 있다. 상량문은 '총본산 각황사 대웅보전 상량문' (『불교』신10집, 1938.2.).

39)' 소식' (『불교』신17집, 1938.11.). '휘보' (『불교』신25, 1940.7.). '15萬餘 敎徒待望의 佛敎 總本山 竣工' (『매일신보』,1938.10.23.). '총본산건축과 낙성봉불식' (『불교시보』40호, 1938.11.).『동아일보』(1938. 10.23, 26.).

40)건설 비용과 그 내역에 관해 언급되어 있는 자료로는 '총본산 건설에 관한 보고' (앞의 책.)와 '조선불교 총본산 대웅전 건축 보고' (앞의 책.), 그리고 한용운의 '총본산 창설에 대한 재인식' (앞의 책.)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총본산 건설에 관한 보고' 에는 총 공사비 185,674원 99전이라 돼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7만원이라 전하기도 한다.(한용운의 앞의 글.) 참고로, 한용운은 '십일전을 새로 짓자면

총본사 대웅전의 坐向은 보천교 십일전과는 달리 子坐午向, 즉 남향이다. 대지는 1,525坪, 건평 229평 8合 6勺二, 間口 100尺, 奧行 56尺, 柱高 21尺(徑2尺), 外 12抱, 內 16抱로 돼 있다.[41] 그러나 건물의 규모는 실측이 아닌 까닭에 자료마다 일치하지 않는다.

공사에 투입된 연 인원은 木工이 7,000명, 瓦工이 200명, 泥匠이 150명, 石工이 250명, 기타 인부까지 합쳐 65,000명이다.[42] 都大工(도편수)은 崔元植, 副大工에는 林培根, 丹靑彩工首에는 朴玄圭, 탱화나 벽화에는 金日燮, 池松坡, 金寶鏡, 安炳文 등이 맡았다.[43]대웅전 본존불상은 영암 道岬寺에서 1938년 6월 5일에 모셔왔으며, 후불탱화도 같은 해 8월에 완성되었다.

100만원은 족히 넘을 것' 이라고 하였다. 김법린은 앞의 글에서 대웅전 건립비 10만원, 대웅전 부속 시설비 6만원까지 합해 16만원이라 적고 있다. '총본산 건설에 관한 보고' (앞의 책)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본산 건설 경비는 총 254,014원으로 추정이 된다. 구체적인 소요 경비는 다음과 같다. 십일전 매입대금 12,000원, 건물매매 중개료 360원, 건물 철거비 3,691원, 건물철거목재 및 기타물품 荷造費 1,221원, 건물철거목재 및 기타물품 운송(정읍에서 서울까지, 철도)비 4,282원, 건물철거목재 및 기타물품 운송 및 운임비(대흥리에서 정읍역, 서울역에서 교무원까지) 6,916원, 운송과 관련한 잡비 534원, 기와대금 5,955원, 석재(石柱,礎石,火防石,步石) 2,727원, 철물 2,294, 재목 보충 16,587원, 건축 및 기초공사 청부금 22,684원, 煖房溝 공사비 일부 3,527원, 전등조명기 구입 및 공사비 일부 1,095원, 전등배선 공사비 일부 500원, 임시창고 건축비 2,205원, 造廳費 일부 2,149원, 불단제작비 일부 846원, 설계료 621원, 補土 169원, 堅志町 27-7, 8, 21호 매입금 19,911원, 위원수당 4,540원, 여비 912원, 일시 차입금 상환 22,250원, 일시차입금 이자 2,996, 제 잡비 2,502원 등 당년 5월경까지 소요된 경비는 모두 143,584원이다. 1938년 5월 경 이후 소요될 비용(예산)은 다음과 같다. 檀家(닷집) 造成費 2,000원, 硝子(유리) 210원, 정원 및 垣牆(담장) 5,000원, 三門 2,000원, 조경공사비 잔액 320원, 전기배선공사비 잔액 1,200원, 전등조명기 구입 및 공사비 잔액 1,000원, 난방구 공사비 잔액 560원, 난방기 및 기관실 19,520원, 섬돌공사비 700원, 위원수당 1,450원, 일시 차입금 이자 2,000원, 낙성식비 3,000원, 기타 잡비 2,500원, 일시차입금 상환 36,670원, 기타 확장비 32,800원 등 총계 110,430원이다. 따라서 5월 이전과 이후의 소요될 예상 경비를 모두 합하니, 총 건설비용은 254,014원으로 추정된다. 새로 지은 것보다는 절반 가까이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의 185,674원 99전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 지는 알 수가 없다.

41)한용운, '총본산 창설에 대한 재인식' (앞의 책). 한용운은 '대웅전 길이 100尺, 넓이 56尺, 高柱 28尺, 大樑 40여 尺, 내 16포 외 11포' 라 기록하는 등 건축물의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는 같은 글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보천교 측 자료의 내용과도 차이가 있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당시 설계 도면이 있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2)한용운, '총본산 창설에 대한 재인식' (위의 책).

3. 總本寺 大雄殿 建立의 意義

1) 佛敎史的 의의

3·1운동 이후 새로 부임한 조선총독 齋藤實[44]은 식민지 정책에 협력한 자를 우대하는 실적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친일 세력을 육성하고, 이들을 통해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고자 하였다.[45] 그는 또한 종교를 통해서도 민족운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예컨대, 사찰령을 개정하여 불교 각 종파의 총본산을 서울에 두고, 이의 관장 및 원조 기관의 회장으로 친일분자를 앉히는 한편,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종 종교 단체에 친일파로 하여금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일본인을 단체의 고문으로 앉혀 어용화를 꾀했다.[46] 일제의 이러한 구상과 불교계의 총본산 건설을 어떤 因果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총본사 대웅전 건립이 갖는 의의는 일제의 의도와는 상관

43)' 소식' (『불교』신17집, 1938.11.), 32쪽. 참고로, 앞의 자료에는 崔元錫으로 표기돼 있으나 경복궁 중건 당시의 도편수 崔元植이 확실하다. 부대공 林培根 역시 최원식의 친구로 1924년 창덕궁 大造殿을 중건할 당시 도편수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44)3·1운동을 겪은 일제는 문화통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총독으로 齋藤實을 임명(1919.8.12)한다. 齋藤實은 1927년까지 조선총독으로 있으면서 한국 내 민족운동을 간교한 방법으로 억압하였다. 이어, 조선총독으로 재 취임(1929.8.17)하여, 1931년까지 있는 동안 국내에서의 독립 움직임을 간교하게 제지하였다.

45)齋藤實關係文書 939-5호(1920).(姜東鎭의『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한길사, 1980.), 167쪽에서 재인용.)

46)齋藤實關係文書 742호(1920).(박경식의『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청아출판사, 1986.), 209~210쪽에서 재인용.)

없이 당시 실의에 빠져 있던 불교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희망을 갖게 했던 커다란 사건이었다. 더불어, 한국 불교계 전체가 일제의 불교 어용화 정책에 협조하였을 거라는 판단 또한 이르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 불교계의 최대 숙원은 '대중 교화(구원)'와 '통합 기관 설치'였을 뿐, 다른 정치적 의도나 사회 참여 움직임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의 정략적 시책에 끌려 다녔다고는 하지만, 이는 종교의 기본 속성을 떠나 불교가 이해된 탓이다. 예컨대, 일제의 사찰령 극복을 위해 노력했던 韓龍雲도 '한국불교의 통제를 스스로가 하지 못할 바에야 외부의 힘에 의해 통제 기구가 만들어짐은 오히려 다행이며, 문제는 향후 한국불교에 미치는 利害에 있다'고 하였다.[47] 향후 한국불교의 발전이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발전과 대중 교화를 위해 단지 일제의 힘을 빌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48] 더불어, 총본사 대웅전 완공을 기념하는 낙성봉불식에 수 만의 인파가 몰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을 살아가는 민중들을 慰撫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실체가 불교였지 않나 싶다.

한국불교의 열세 및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朝鮮佛教曹溪宗總本寺太古寺'(후에 曹溪寺)의 성립이 갖는 불교사적 의의는 각별하다. 그 동안 불교가 자리할 수 없었던 서울 중앙에 불교계 핵심 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상징인 총본사가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한국불교가 대중 교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1920년 당시 통계상 신도 15만도 안 되던 한국 불교계가 1942년에 이르러 25만에 가까운 신도를 확보하였다는 것은 불교가 산간에서 도시에로의 진출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해방 이후 한국 최대의 종교로 도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49]

2) 文化史的 의의

보천교 성전에서 불교계 총본사로 전용되어 발생된 문화사적인 의미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선, 불교계 총본사로 전용된 대웅전의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십일전을 옮겨 지을 당시 기존의 包 6

47)韓龍雲, '朝鮮佛教統制案'(『佛教』신2집, 1937.4.). 앞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佛教 統制의 動機가 自動이냐 被動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지 않거니와 가령 他動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가 他動이라 他動이라 하여서 조금도 不可할 것은 없는 것이다. 그 보다도 自動으로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他動으로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다행한 것이 아닌가 다만 문제는 統制의 方法을 朝鮮佛教에 有利하게 하것너냐 오히려 有害하게 하것너냐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용운은 불교계가 사찰령에 의거, 일제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얻어내 총본산을 설립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았다.('총본산 건설에 대한 재인식'(『佛教』신17집, 1938.11.).)

48)일제의 사찰령을 극복하는 것은 항일 민족운동을 통한 일제의 패망을 전제하기 때문에, 당시 불교계 통일운동은 사찰령 극복의 이상적 대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김광식의 앞의 글, 412쪽.) 불교계 통일운동이 사찰령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가정을 해도, 이는 불교를 민족운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종교 운동은 분명 민족운동과는 또 다른 입장을 지니기 때문에, 불교계의 '사찰령 극복'과 '통일기관 설치'는 별개의 사안이라 본다.

49)1920년 기독교인(한국인)은 319,357명, 불교인(한국불교를 신앙하는 한국인)은 149,714명으로 기독교의 우세로 나타나 있다. 그러던 것이 1929년 末의 통계에는 기독교인 306,862명, 불교인 169,012명, 기타 종교인 431,985명으로 기독교인은 다소 줄어든 반면 불교인은 약간 늘어났다.(『數字 朝鮮 硏究』3집, 1932.). '일제하의 한국실태'(『한국학』제11집 부록,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76.)에서 재인용.) 실제, 1923년 5월 末에 조사한 자료에 기독교인이 368,500여 명, 불교인이 162,892명(승려 7,215명, 사찰 1,261개소)으로 앞의 통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선의 종교 및 종교유사단체'(『매일신보』, 1923.11.7.).) 당시 일간지에서도 총본산 조계사 건립 당시의 불교인 수를 150,000여 명으로 표기하곤 하였다.('15萬餘 教徒 待望의 佛教 總本山 竣工'(『매일신보』, 1938.10.23.).) 이후, 1942년 통계에는 일본 불교인(일본불교를 신앙하는 일본인)가 362,587명, 한국불교인(한국불교를 신앙하는 한국인)이 244,671명(본사 31, 말사 2,254개, 승니 6,825명) 등 한국인 불교도는 총본사 건립 당시보다 거의 배 이상이 는 반면, 기독교인은 374,487명으로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公認은 神·佛·基 三教'(『매일신보』,1944.9.12.).) 부첨 참고.

개를 제거한 9개의 공포만을 사용하였다고 차월곡의 후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필자가 옛 십일전 사진과 현 조계사 대웅전을 면밀히 대조해 본 결과, 柱礎 위 통기둥(평주) 하단부 약 120cm 정도를 잘라내고 석재로 대신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음이 드러났다. 더욱이, 門과 交窓 등에 나타난 창살의 꽃판과 내부의 장식과 문양, 천장의 문양과 그림과 그리고 채색까지도 달라진 게 없다. 단지, 기와와 계단의 섬돌, 그리고 벽에 걸린 주련과 벽 하단의 벽화는 移築할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고쳐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고건축사에 남을만한 '조계사 대웅전'은 한국불교의 중흥과 종단의 합리적 운영으로 200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 받게 되었다. 그리고 대웅전 내부의 '목석가모니불좌상'과 '후불탱화'는 2000년 7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26호와 125호로 각각 지정 받았다. 이는 전통사찰 건축물로서, 보존 가치를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명목상 어찌됐던 간에, 근래 보기 드물게 근대에 설립된 고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문화적인 가치까지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맺는말

종로구 수송동 44번지(地番)의 웅대한 정면 7칸 측면 4칸 木造瓦家가 曹溪寺 大雄殿임은 앞서 주지한 사실이다. 조계사 하면 웅장한 大雄殿을 떠올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規模나 美的으로 보아 근래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자, 한국불교의 총본사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조계사라는 사명에 앞서 太古寺라는 寺名이 먼저였음과 井邑의 普天教 十一殿(太極殿)을 그대로 移築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흔치 않다.

한국 불교계가 보천교 십일전을 선택한 동기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로서는 당시 사회운동 세력으로 급부상한 보천교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요, 한국 불교계로서는 총본산 건설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았을 것으로, 자연스레 보천교 십일전의 毁撤 및 移築으로 이어졌으리라 본다. 더불어, 한국불교로서는 南山의 朝鮮神宮의 健在와 왜색불교 일색인 사회 분위기에서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불교를 표방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으며, 그 동안 침체를 걷던 한국불교의 현실적 과제인 대중 교화를 위한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규모나 미적으로 보아 당대 최고인 십일전 건물의 移築을 시도한 게 아닌가 한다.

이축 과정을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다.

31본산주지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총본산 건설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1937년 2월부터 총본사 건축이 본격 시작되었다. 1937년 3월에 정읍의 보천교 십일전을 일본인으로부터 12,000원에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1937년 5월 5일에 十一殿 해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1937년 5월 14일에 철거된 석재와 목재의 운반이 완료되면서 총본사 대웅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이축 공사는 빠르게 진척이 되어, 20개월 만인 1938년 10월 10일에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이축한 대웅전에서 낙성봉불식을 봉행하였다. 이축 과정에서 소요된 건축 비용은 총 185,675원, 공사에 투입된 연인원은 65,000명, 경복궁 중건 당시 도편수였던 崔元植이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본사 대웅전 건축이 완료된 후에는 과연 寺格과 寺名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난하게 계속되었다. 결국, 유래가 있는 북한산의 太古寺를 이전해 오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서, 사명을 태고사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1년 4월에 '朝鮮佛教曹溪宗 總本寺太古寺'라는 宗名과 寺名이 포함된 寺法이 인가됨으로써, 1929년부터 시작된 총본산 건설은 일단락 짓게 되었다.

한국불교의 열세 및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 동안 불교가 자리할 수 없었던 중앙에 불교계 핵심 기관이 들어섬으로써 향후 한국불교가 대중 교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1920년 당시 통계상 신도 15만도 안 되던 한국 불교계가 1942년에 이르러 25만에 가까운 신도를 확보하였다는 것은 당시 민족·민중운동의 상징적 건축물인 십일전을 옮겨 지은 조계사 대웅전의 영향이 작용했으리라 본다. 따라서, 조계사의 건립은 해방 이후 한국 최대의 종단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근대 고건축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十一殿의 보존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끝으로, 불교계에 의해 보천교 십일전이 轉用된 것과 관련하여, '만약 십일전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더라면 보호도, 문화재 지정도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일각의 냉소적 자탄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아직도 사이비니 사기니 하는 수식어 떼기를 주저하는 세간의 인식 속에서, 십일전의 존립 가능성은 희박하다. 본소의 현존한 부속 건물 두어 채 역시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무너져 내려 흉가처럼 변해버린 현실을 굳이 들이밀지 않더라도, 일제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毁撤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쉬 가시지 않는다.*

■ 부첨 : 일제하 종교 관련 통계

본 통계는 1928년에서 1944년 사이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정리하였다.〈필자주〉

◆1923년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 : 17,000,000명

*' 朝鮮の地方制度及社會事業竝教育·宗教の現狀 '(『朝鮮』8, 朝鮮總督府官房庶務部 調査課, 1923.)

◆1923년대 불교와 기독교의 교세 비교

종 교 명		교파수	사찰(교회) 및 포교소수	성직자수	신 도 수
불교	일본불교(일본인)		336개	339명	664명
	조선불교(조선인)		1,261개	7,215명	162,892명
기 독 교		18개파	3,555개		368,500여명 (한국인)
					5,000여명 (일본인)

*1923년 5월 말 조사. '朝鮮의 宗教及 宗教類似團體' (『每日申報』, 1923.11.7.)

◆1924~1933년 사이 불교와 기독교의 교세 비교

(*단위 / 포교소(당)는 개, 신도수는 명)

구분 \ 연도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불교	포교소수	71	62	82	82	95	104	117	120	135	147
	한국인 신도수	203,386	197,951	170,213	189,670	166,301	169,012	139,406	141,836	118,497	128,03
기독교	포교당수	3,794	3,896	3,664	3,069	3,911	3,941	3,913	4,028	4,026	4,269
	한국인 신도수	342,716	356,283	293,470	259,077	280,774	306,862	308,080	338,463	366,863	414,64

*1933년 12월 말 조사.『朝鮮に於けろ宗教及享祀一覽 (昭和八年十二月末調)』(朝鮮總督府社會科, 1933.)

◆1920년 · 1930년 전후의 각 종교의 교세 비교

*불교와 기독교는 조선총독부학무국 종교과에서, 기타 종교는 조선총독부경무국에서 조사하였다.

*기타 종교는 유교, 천도교, 상제교, 보천교 등 14개교를 말한다.

연도와 구분 / 종교명	1920년 조사		1929년 말 조사		1931년 말 조사	
	포교소수(개)	신도수(명)	포교소수(개)	신도수(명)	포교소수(개)	신도수(명)
불교(한국인)	45	149,714	104	169,012		
기독교(한국인)	3,279	319,357	3,941	306,862		
기타종교(한국인)	?	?			1,224	431,985

*' 朝鮮宗教界總觀' ,『日帝治下의 韓國實態 Ⅲ』(『韓國學』제11집, 永信아카데미 韓國學研究所, 1976.)

◆1942년 불교와 기독교의 교세 비교

◇1942년 불교 교세

구분 / 불교명		교파수	사찰 및 포교소(개)		성직자수(명)		신도수(명)
			사찰	포교소	승려	포교사	
불교	일본불교	9종17파	236	719	2,080	666	362,587(외국인, 한국인 포함)
	한국불교	31본사	2,254 말사	409	6,825	420	244,795(일본인 포함)

*1942년 말 조사.「公認은 神. 佛, 基 三教」(『每日申報』1944.9.12..)

◇1942년 기독교 교세

구분	교파수(개파)	포교소(개)	포교사(명)	신도수(명)	
				한국인	일본인
기독교	25	5,497	4,304	374,487	8,315

*1942년 말 조사.「公認은 神. 佛, 基 三教」(『每日申報』1944.9.12..)